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5월은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자”

푸르른 5월이다.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등 감사하고 축복할 일이 많이 있는 달이다. 또한 가정과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그 중요성과 고마움을 되새겨 보며, 좀더 나은 가정 생활을 위해 결단하고 기도하는 달이기도 하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천국시민의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하는 우리교회는 예배와 교회학교의 각종활동 등을 통해 가정의 달을 의미있게 보내게 된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여성, 부모와 자녀, 부모 등 가정 내에서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찾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지침을 모색해 보는 『가정세미나』를 세번에 걸쳐 가진다. 금요일의 세미나에 모두 참여하기 위해 다락방 모임을 별도로 가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라는 전제 아래 하나님과 사람보기에 아름다운 가정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성실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가치에 바탕을 둔 습관과 생활을 익히도록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삶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은사를 개발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 주며 구체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은사를 실천

하는 능력을 스스로 연마해 가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때에 더욱 의로움과 소의 감을 느끼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부족 한 것을 채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중만케 하라”(빌립보서 2장 4절)

가정세미나 프로그램

구분	때	주제	대상
제 1강	12일(금)오전 10시 - 12시	행복한 여성과 가정, 그리고 신앙	여자 성도
제 2강	19일(금)오전 10시 - 12시	자녀교육 - 행복한 부모와 자녀	자녀를 가진 성도
제 3강	27일(토) 오후 7시 - 9시	부부간의 한마음 워크숍	20 - 50대 부부
강사		심상권 목사	

북한동포 돕기운동에 참여

구제위원회, 금식헌금 전달

구제위원회(위원장: 이영세 장로)에서는 지난 주간에 성도들이 금식하여 바친 헌금 500 만원을 북한동포들에게 전달 구호미 구입비로 한국 선명회(회장: 이윤구)에 전달했다. 이 헌금은 함경북도 일대의 근로자 가족을 돕는 데에 직접 사용된다.

김덕수 선교사, 육사교회 파송

전도위원회(위원장: 박철훈 장로)에서는 당회의 허락을 얻어 김덕수 전도사를 육군 사관학교 전도사로 파송하기로 하였다.

김 전도사는 육사 34기('78)로 1990년 소령 예편 후, 1994년에 장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현재 목사 고시에 합격한 목사 후보생이다.

테이프 전도 확산

육사 내무반에까지

현재 우리 교회 주일예배실황은 라디오 전파를 통해 국내외로 방송되고 있으며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 전후방 장병들과 월남의 하노이에 있는 한인교회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로 보내지고 있는데 이번에 예배실황을 담은 카세트테이프를 육군사관학교 내무반에도 매주 보급하게 되었다. 방송 매체를 통한 전도의 열매를 인해서 우리교회 음향관계자와 테이프 제작진들은 기쁘게 수고하고 있다.

제16회 강남노회 정기회

5월 9일(화), 여성안수문제 다룰 예정

서울 강남노회 정기회가 오는 9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영동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노회이 중요 안건은 헌법 개정에 대한 총회 수의안 중 여성 안수 문제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교회에서는 목사 5명, 장로 7명, 총 12명의 총대가 참여한다.

KIMCHI 동문회 제 2차 총회

15(월), 16(화) 양일간 광성수련원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세미나 동문회(회장: 정경화 목사)에서는 5월 15일(월)과 16일(화), 양일간 광성수련원에서 제 2차 총회

를 갖는다. 15일(월) 오후7시부터는 임택진 목사로부터 “나의 목회를 말한다”는 제목 아래 원로목사인 그의 목회 생활의 경험담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현재의 목회 방향과 동문회의 활동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갖게 된다. 16일(화) 오전에는 이종윤 목사가 “성령세례, 중생, 은사”에 대해 강의한다.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MCHI의 동문의 자격은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네 학기 이상 수료한 자에게 주어지며, 이번 총회는 새로운 동문들을 위한 환영의 순서를 마련하였다. 총회 참석문의는 한국교회 갱신연구원(☎517-7651 ~ 5)으로 하면 된다.

인사이드

- 유순화 전도사는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 4월 30일자로 사임하였다.
- 임마누엘 찬양대 오르가니스트였던 정은원 집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후임으로 서유진 선생이 임명되었다.
- 지기영 선생이 5월 1일부터 사무직원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가정의 달 설교 ①

어린이 인권

마가복음 10장 13 - 16절

이종운 목사

오 늘 우리 사회에는 민주화 열기와 함께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저마다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으며 살아보자고 하는 주장은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먼저, 우리가 흔히 무시해 버리기 쉽고 때로는 우리가 맞아주지 않으면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찾아누릴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인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랍 사람들은 아테네에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 정문 앞에 '기하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갈 천국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이 천국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써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한 자는 천국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주셨을 뿐 아니라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I. 예수님은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청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마치 그들을 초청하신 것처럼 맞이하여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반발하고 부모와 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유가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부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동지가 비뚤어지고 부모와 자녀간에 인격적인 관계와 대화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II. 주님은 어린이의 가치를 인정하실 뿐 아니라 장점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른에게도 그러하지만 어린이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심으로 어린이의 가치와 장점을 최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어른들의 보호없이 아무 것도 모르는 철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3 - 16절)

지오 골치 덩어리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백퍼센트 다 좋은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좋은 점을 발견하여 격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신대로 아이들은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배우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거짓이 없고 단순합니다. 진실하여 말이 달라지지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오히려 본받아야 할 어린이의 특성이며 천국시민의 모습입니다.

III.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와 부모, 어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을 따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

니다. 백성의 죄를 걸머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의 죄를 내가 범한 죄로 알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사회의 부패와 도덕적 타락과 청소년 문제는 책임지려하지 않는 이기주의자들이 더러운 욕심으로 온갖 독소를 확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둘째,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과잉보호와 편애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위에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왕처럼 사랑의 권위로 어린이를 다스리고 자녀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며 건강을 보호해 주고 좋은 환경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해 주는 것이 어른들과 부모된 자의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뿔들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심각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직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는 일을 바로 감당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의 온전한 천국시민으로 양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까.

▶가정의 달- 순례자 캠페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
(에베소서 5장 21절)

① 내 자녀와 눈높이를 맞추어봅시다

어린이가 아니었던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챙이 적을 잊어버리고 눈높이를 못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한 요구나 기대로 자라는 새싹의 기를 꺾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간섭때문에 자녀의 시각으로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부모된 이들에게 종종 있는 모습입니다.

"대접받고 싶은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네 눈에 들보는 못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 하신 주님의 말씀이 신실한 마음이 결여된 채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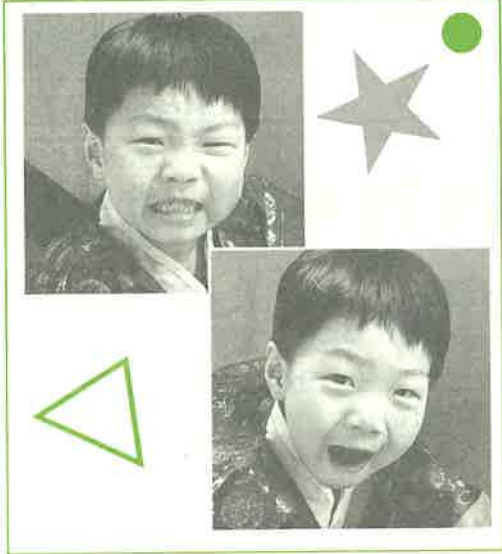
부모도 광의(廣義)의 의미에서 본다면 직업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이 있고 자녀 교육은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선교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알고 (자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힘씀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중요한 결단은 스스로 하며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조용히 본을 보입니다. 특별히 자녀의 입장에서 서서 그들을 이해하는 5월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손은 작아요, 우리 맘은 작아주세요!

- ▶ "나는 나는 뭘 타이다" - 장래 희망
- 지금 우리 선생님 같은 국민학교 선생님
- 장애인을 가르치는 선생님
- 해외를 두루 돌아다니는 외교관
- 말을 잘하는 변호사
- 멋있는 패션 디자이너
- 천사같은 간호원
- 장애인 복지사업에 재산을 바치는 사업가
- 모든 장르의 작품을 고루 쓸 수 있는 작가
- 해양학자
- 베레모 쓴 화가
- 정의감 넘치는 경찰관
-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
-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



- 교회 친구들이 결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 친구들이 자주 나를 놀려서 교회에 가기 싫은 때도 있어요.
- 교회 행사가 더 많아져서 지금보다 더 자주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 교회 프로그램이 좀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말씀도 시청각 자료와 함께 한다든지...
- 기도시간에 눈뜨고 장난하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요.
- 주일에 종일 머물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 독서실이 있었으면

- ▶ 기분이 제일 좋을 때
- 시험 잘 봤을 때
- 상받았을 때(국민학생의 약 50%가 이같이 응답하였음)
- 찬양대에 섰을 때
- 잠잘 때
- 실컷 먹었을 때
- 유치원 갈 때
- 부모님이 내가 원하던 것을 사주셨을 때
-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 가족과 함께 놀러갈 때
- 친구들과 운동할 때
- 아빠가 강아지를 사오셨을 때

- ▶ 기분이 상할 때
- 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공부해야 할 때
- 키 작다고 놀림 당할 때
- 친구와 의견차이로 다투었을 때,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이상해 질 때
- 시험 못봤을 때
- 야단맞을 때
- 동네의 친구가 불란서로 이사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 섭섭했다.

- ▶ 요즈음에 제일 흥미있는 일
- 책읽기(만화책, 과학소설, 창작동화 등), 그림 그리기, 하모니카 불기, 공기놀이, 운동, 컴퓨터 게임, 먹는 것 / 다이어트, 태권도, 대중가요, 친구, 물건사기 / 돈 쓰는 일

- ▶ 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
- 통로가 좀더 넓어졌으면
- 실컷 뛰놀 마당과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 ▶ 부모님께 한마디
-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 엄마, 지금보다 건강해 지셔야 해요!
- 공부하라는 말씀은 이제 그만
- 동생과 차별대우 말아주시길.
- �빠도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만 야단치시는 엄마는 미워요.
- 행동이 다소 느린 제게 "빨리, 빨리!" 라고 하시는 엄마의 말씀은 잔소리로 들려요.
-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좀 너주세요!

▶ 어린이와 함께

요한복음 6장의 그 소년처럼 - "예수님께 드려 이웃과 나누는 사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프았습니다. 아이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울었지만 부모들에게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고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2백 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더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늘 먹는 음식인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였습니다. 소년은 예수님께 이것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신 후에 소년이 가지고 온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고 모인 사람들은 배부르게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음식을 모아보니 열 두 광주리가 되었습니다.

- *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겠어요.
- * 배가 고프은 아프리카의 어린이, 몸이 아픈 어린이, 부모님이 안 계셔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소년 소녀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어린이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도록 기도해요.

전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매년 어린이날이 되면 기억나는 일이 있어 아버지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작년 5월 초, 공무출장으로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5월 6일 아침에 김영삼 대통령과 각 부처 물가 담당 국장들의 조찬이 있으니 꼭 참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귀국 일자를 앞당기기로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비행기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신 순우 (집사, 중등부 교사)

▶간증 - 5월 첫 주에 생각나는 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 개최된 국제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후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서 있는 행사를 마치고 5월 5일 귀국길에 오르는 비행기를 탔는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KAL)으로 바꿔 타기로 예약되었었는데 독일비행기(루프트한자)의 엔진 고장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되어 밤 10시 출발예정인 KAL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했던 날짜에 귀국할 수 없게 되고 청와대 조찬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직자로서 책임 문제가 따를 것이므로 마음이 초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위낙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반신반의 하면서도 루프트한자 비행기 안에서 저는 간절할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렸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5일 밤까지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KAL 비행기를 한시간만 꼭 붙들어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기도를 드렸지만 아버지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것같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들었다면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KAL

출발시간이 지난 밤10시 5분이었습니다. 예상대로 'KAL은 이미 떠났으니 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 가는 수밖에 없다'는 독일 항공사 직원들의 무책임한 대답에 저는 그만 맥이 빠져버렸고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하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신들 비행기 고장 때문에 KAL을 놓쳤으니 어느 항공사를 이용해서라도 내일 새벽까지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속수무

책이었습니다.

책임자를 만나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KAL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으니 빨리 가 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거대한 불덩어리인 태양도 영원히 붙들어 두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행기 한 대 붙잡아 두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겠지."

쾌재를 부르면서 급히 승강대로 가보니 KAL 승무원과 승객들 사이에 비행기표 예약 싸움이 벌어져 한 시간 이상 출발을 늦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은 좀처럼 없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을 잠시나마 의심했던 저의 부족한 믿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잡고 나니 안도의 한숨과 함께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중요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비행기를 붙들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잠시나마 아버지를 불신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저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그런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쉽고 안락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전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자녀,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것을 주신 다음에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갑과 동시에
삶을 즐길 줄 알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하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 맥아더의 기도문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 제 7 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 ⑥ 5월 8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성령운동과 영성(김의환 박사)
- ⑦ 5월 15일 -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설교자와 영성(임영수 목사)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린이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숙해 갈 수 있도록
2. 제 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새로와 질 수 있도록
3.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의 준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위하여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